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

그리스도와 성경

(마 5:17-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지만 본문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17절)고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1.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바르게 기록되도록 기록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믿었고 성경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어요 저자로서 그의 사역에 대한 권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지식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5).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롬 8:4).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이들이 성취할 수 없는 율법을 자신이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벌을 받음으로 죄인은 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은 의인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 10:4).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시 40:6).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번제와 속죄제에 드리는 황소나 염소는 진정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제물을 바치게 하므로 죄는 곧



고 이종운 원로목사

죽음을 뜻한다고 가르치신 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3. 그리스도와 예언(선지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어디서 나실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그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 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창 3:15).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

리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②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너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8).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 3:16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는 말씀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곧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③ “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여기에서 아굽은 유다에게 ‘실로’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실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후손 중 왕권과 이방 나라를 모아 율법을 주실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을 단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 민족의 생성, 발전, 실패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인간, 율법, 공의와 같은 사상적 발전상을 보기 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적인 측면이나 발전적 측면도 있겠지만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우리의 이해를 위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목적인 바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그가 무죄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영 죽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믿게 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그를 위하여 모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자는 고 이종운 원로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10편을 선정하여 사순절 기간까지 게재한다)

고종, 기독교 선교기관을 공인하다



손달익 위임목사

서양 세력에 대한 불신과 기독교에 대한 경계가 가득했던 조선에서 선교기관들이 빠르게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조선 왕실의 지원이 있었던

...

왕실의 공인을 받은 이후 서양인 학교는 조선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보였다



고종황제



윌리엄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아펜젤러



정동 시병원 전경

정동에 기독교 선교기관을 먼저 설립한 것은 감리회였다. 감리회의 의료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은 제중원에 합류한 지 한 달 만에 사임하고 별도의 병원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관민합작 성격의 제중원은 온전한 선교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다. 스크랜턴은 1885년 9월 10일 자신의 집 방 하나를 개조하여 진료소를 열었는데 가난한 이들이 몰려들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예 기와집 한 채를 구입하여 병원으로 개조하였다.

병원은 특별한 이름이 없어 “미국인 의사병원”이라는 간판을 걸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매일 열시에 빈 병을 가지고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누구든 약을 담아 갈 빈 병 하나만 가지고 온다면 무상으로 치료해 주겠다는 의미였다. 병원은 성황을 이루었는데 스크랜턴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기에 병원은 성황을 이룰수록 적자였다. 이를 지켜본 고종은 1887년 4월 스크랜턴의 병원에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보내고 건물 경비원에 해당하는 기수를 배치해 주었다. 이름과 기수의 하사는 조선 왕실이 이 기관을 공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공인은 선교사업 초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스크랜턴에게 환자가 몰려왔던 것과는 달리 교육선교를 담당했던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학생 모집에 부진을 겪었다. 메리 스크랜턴은 내한하자마자 사택 인근의 초가집 19채와 일대 언덕을 매입하고 언덕을 깎는 대규모의 부지조성 공사를 벌여 1886년 11월 200여 칸이나 되는 큰 집을 완공했다. 메리 스크랜턴은 공사가 한창이었던 1886년 5월부터 호기롭게 여성교육에 나섰지만 서양인에 대한 경계에 더불어 여성교육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으로 학생 모집이 쉽지 않았다. 때로는 서양 도깨비에게 딸을 팔아넘겼다는 비난을 이기지 못한 부모가 학생을 데려가려 하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조선에서 10리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야 했다.

메리 스크랜턴의 돌파구는 역시 학교명을 하사받는 것이었다. 1887년 1월 메리 스크랜턴은 정부의 고위관리를 초청하여 그동안 여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학교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자리

에 참석한 외서독관 김윤식이 학교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식은 여성교육을 위해 조정이 은혜를 베풀 것을 건의하였고 조선 왕실은 같은 해 2월 ‘이화학당’이라는 이름과 기수를 하사하였다.

아펜젤러도 학생 모집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아펜젤러는 1885년 8월부터 스크랜턴의 부탁을 받아 의사가 되고자 하는 조선인 두 명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에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 많았기에 학생이 조금 늘어났다. 아펜젤러는 이에 힘을 얻어 여러 가족과 부지를 매입하고 1886년 6월 8일 정식으로 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학생이 오지 않았다. 첫 학기를 시작할 때 학생은 고작 6명이었다. 조선 청년들은 서양 세력과 왕실의 관계가 언제 틀어질지 모르고, 관계가 틀어질 경우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 걱정했다. 결국 학생들은 아펜젤러에게 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아펜젤러는 다시 김윤식을 통해 고종에게 학교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고 1887년 2월 21일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청년들의 우려가 불식된 이후 아펜젤러의 선교사역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배재학당, 시병원이 차례로 왕실로부터 이름과 기수를 받게 되면서 감리회의 선교사업은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정부의 공인과 보호를 받는 사업이 되었다. 서양 세력에 대한 불신과 기독교에 대한 경계가 가득했던 조선에서 선교기관들이 빠르게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조선 왕실의 지원이 있었던 셈이다. 왕실의 공인을 받은 이후 서양인 학교는 조선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보였다. 독립운동가 김란사는 이화학당 입학 당시 프라이(Lulu Frey) 선교사에게 자신을 받아달라며 이렇게 간청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밤중처럼 캄캄합니다. 나에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17-23)

새가족부



김은석 안수집사
(새가족부 부감)

서울교회에 등록된 새신자의 교회 정착을 도와주는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로, 지도교역자:박미라 전도사)에서는 3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손달의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2023년 1분기(1월-3월) 교육 수료자를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이 환영회에는 위임목사님과 수료자들의 소속 교구장, 지도교역자, 다락방장 그리고 그간 수고하신 담당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육 수료를 축하하고, 서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료자들이 앞으로 서울교회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가족환영회에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출석을 원하는 새가족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새가족부 교육은 총회국내선교부에서 출간한 새가족 교재를 중심으로 서울교회 소개, 하나님과 나, 예수님, 믿음, 구원, 교회생활, 교회정착을 주제로 5주간 시행됩니다. 새가족부는 매 주일 1부 예배 후 602호에서 교사 박은영 권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여, 박미라 전도사의 강의, 그리고 담당교사의 1:1 면담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한 부장과 지도교역자 그리고 15명의 교사는 매주 교사회의를 통해 70인전도대가 활동을 재개하므로 앞으로 서울교회를 찾으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의 정비,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과 수료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교회 부서 연계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대영·방효정 성도 부부(1교구 9다락방), 신두철·김은경(12교구 3다락방), 이준원(2교구 2다락방), 이영문 성도(1교구 9다락방), 정선미(2교구 3다락방), 조은혜 성도(3교구 4다락방)

초대합니다

- 대상 : 2023년 1월 - 3월까지 새가족 교육 수료한 새가족
- 시간 : 2023년 3월 26일(주일) 2부 예배 후
- 장소 : 802호

새가족환영회

그리스핸드벨

천상의 소리 핸드벨을 같이 연주할 대원을 기다립니다



손지희 집사
(그리스핸드벨 부대장)

살롬~!
은 세상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 또 하나의 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핸드벨에서 핸드벨 연주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대원으로 모집합니다.

저희 그리스핸드벨 대원들은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서 매주 아

름다운 찬양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각자 맡은 벨들을 가지고 대원들과 합을 맞추어 아름답고 풍성한 연주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챙겨주

며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것 또한 자랑할 만합니다.

송재월 지휘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오랫동안 핸드벨 대원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대원들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받쳐주고 있어 음악적 재능이 없더라도 선생님을 비롯한 대원들과 함께 배우며 관심있는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매 주일 9시 30분에 4층 가이오실에서 연습하며 2부 예배에서 하나님께 핸드벨을 통해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벨을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거룩한 주일 많은 대원들이 모여 아름다운 핸드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재미와 함께 하는 2023년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



관리위원회(위원장 : 이강인 장로)는 오는 4월 1일(토)에 예정되어 있는 봄맞이 전교인 청소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교구 단체 선물과 보물찾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교구 단체 선물은 안전점검과 검사를 담당하는 교구위원장 서은석 장로가 교구별 참석 인원과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주어지며 보물찾기는 성도들이 청소하며 찾을 수 있도록 교회 구석구석에 숨길 것이라고 한다.

2023년 봄맞이 전교인 청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2023 서울교회 청소 대축제 조직 >

- 총 괄: 손달익 위임목사
- 위원장: 이계홍 서기장로
- 본부장: 이강인
- 차 장: 예완식
- 안전관리 및 검사: 서은석
- 실행위원: 유태서 장상국 정승균

<구역별 담당>

- 지하층 대장: 오윤걸 / 부장: 임우택 / 간사: 허경화 / 9교구
- 1층 대장: 노제현 / 부장: 김광래 / 간사: 유미영 / 1교구

- 2, 3층 대장: 김승록 / 부장: 홍창훈 / 간사: 김인아 / 2교구
- 4층 대장: 차영도 / 부장: 박광식 / 간사: 이현정1 / 4교구
- 5층 대장: 이민호 / 부장: 옥종호, 소훈 / 간사: 박현영 / 5교구
- 6층 대장: 유충기 / 부장: 장창수, 임대중 / 간사: 노애리 / 6교구
- 7층 대장: 김혜연 / 부장: 이승준, 한대석 / 간사: 김양희2 / 7교구
- 8층 대장: 김광태 / 부장: 장호림 / 간사: 제오복 / 8교구
- 9층 대장: 이영희 / 부장: 심상필 / 사라전도회
- 외곽: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 간사: 박혜정3 / 3교구 / 아브라함선교회
- 식사: 장호림, 백영자, 허숙, 김정영, 김정두



지난 3월 15일(수)에 70인전도대는 한나전도회와 함께 경건회를 마친 후 수요노방전도를 펼쳤다. 다시 시작하는 70인전도대의 영적 무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 비전 2030 후원자

이영옥(5구좌) 임우택·김정숙(2구좌)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이영옥(1구좌) 임우택·김정숙(1/2구좌)
최종금(1/2구좌) 안미경(1구좌)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이영옥(1구좌)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동 정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 되게 하소서.
2. 교회의 섬김과 예배, 전도와 섬김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웃과 함께 하며, 주변 사회에 선한 사랑과 영향력을 미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죄와 불의, 이기심과 탐욕, 분열과 전쟁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이 있는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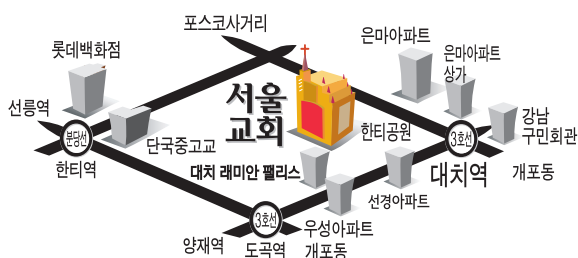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0일	월	수 18-19		느 8-13	
3월21일	화	수 20-21		에 1-10	
3월22일	수	수 22-24		욘 1-6	
3월23일	목	삿 1-3		욘 7-13	
3월24일	금	삿 4-6		욘 14-20	
3월25일	토	삿 7-9		욘 21-28	
3월26일	주일	삿 10-12		욘 29-34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